

## 世相을 만든다.

柳 騎 榮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弘報課長)

요즈음 자고나면 世相이 달라진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좋아지는 세상으로 달라지고 있으니 달라질수록 좋다는 생각이 든다.

世相이 바뀌어가고 있음이 分明하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天地造化니 하는 등의 人間外的 自然現象의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意志에 의해서 달라져가고 있다는 사실에 무언가 새로운 느낌을 갖게 한다. 다른 表現을 빌리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政治的 意志에 따라서 즉 政治하는 사람들의 政策 方向에 따라서 달라져가고 있는것 같다.

달라지는 世相 — 곧 政策의 表現이다.

옛날에는 가뭄이 들었다, 장마로 洪水가 났다, 이같은 自然現象에 의해서 世相의 變化를 가져오기 일쑤였으나 現代社會는 高度화된 政策과 그 手段에 의해 變化를 극복하고 方向을 바꾸고 있으므로 政治에 있어 政策開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가고 있는것 같다.

現代社會는 政治的 意志가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도 모른다. 政治와 社會發展과의 函數關係는 社會가 近代化되어 갈수록 濃度가 짙어지는 것 같다. 高度化되고 緻密化되고 科學化되고 이에 따라 社會改造가 進展되는지도 모른다.

太平洋戰爭 때 日本에서 有名했던 「미끼기요시」(三木清)라는 學者가 남긴 '哲學노트'에 '만드는 社會'라는 題目的 글이 있다. 三木씨는 反戰論으로 當時 軍部로부터 미움을 샀으나 和平論을 펴다가 끝내는 獄苦 끝에 終戰前에 세상을 떠났다. 生前 그는 日本軍國主義 政策이 '奇怪한 세상'을 만들었고 이같은 社會속에서 살게 된 국민들도 점차 奇怪한 사람들이 되어간다고 述懷했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사람의 生活樣式이나 生活形態가 社會를 만드는 것이 못되고 정부의 政策이 社會類型을 만들고 社會類型에 따라 사람의 生活型이 생겨난다는 것이다.

人間은 性善이나 性惡이나, 人性이 環境의 支配를 받느냐 아니냐? 折衷說까지 나와 東西에 걸친 많은 學者들의 理論이 紛紛하지만 近代教育에 있어 教育政策의 중요성은 최근의 우리나라 事情에서도 實感할 수 있는것 같다. 지난번 斷行된 課外學習의 改革이며 이른바 강패소당과 그들에 대한 淨化教育 등 좋은 政策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기틀로서 마음 흐뭇함을 禁할길 없는것 같다.

科學과 技術을 禮讚하는 學者로서 C. H. 갈레르기라는 經濟學者가 있다. 그의 著書「第二의 樂園」에 의하면 西紀 2천년대는 科學과 技術의 發達로 地上에 樂園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갈레르기」博士는 二次大戰後 EEC를 가장 먼저 提唱함으로써 有名해진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歷史는 科學과 技術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主張했다. 그는 그의 이같은 主張의 根據로서 人類는 數千年에 걸친 人類의 꿈을 科學과 技術에 의해 하나씩하나씩 實現시켜 오고 있다면서 歷史的 史實을 列擧하기도 했다.

「갈레르기」博士의 所說에 따르면 특히 技術分野는 政治나 經濟 또는 教育, 勞動 등 사람을 對象으로 해서 다루는 社會科學分野가 아니고 自然을 對象으로 다루는 自然科學이기 때문에 試行錯誤에 대한 被害가 極小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科學技術이 軍事化되어 大量殺傷하는 武器에 利用되는 것은 警戒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主張에 따르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科學技術의 「善意的發展」이며 科學과 技術에 대한 倫理를 내세우고 있다. 그것은 마치 企業의 現代的 社會性的 俱現에 있어서 企業倫理가 강조되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人間陶冶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다. 나라를 잘 다스리면 살기좋은 세상이 되고 나라를 잘못 다스리면 살기가 나쁜 세상이 된다. 착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면 좋은 世相이 되고 나쁘게 만들어진 사람이 많이 생겨나면 나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쁜 社會에 좋은 사람이 많을 수가 없고

나쁜 사람이 득실거리는 社會가 좋은 세상이 될 수 없음은 自明한 理致인데도 사람들은 스스로의 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만 나무란다는 것은 自家撞着인것 같다.

蕩武時代가 天地造化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道拓같은 天下의 惡人도 天地造化가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다. ....

최근 美國의 某著名한 經濟學者도 現代政治에서 經濟政策이 갖는 比重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더욱 強調되고 있는것 같다. 經濟動向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敏感한 反應이 그러하고 政府가 펴는 갖가지 政策中에서 국민들이 가장 높은 關心을 보여주는 것이 經濟分野인것 같다.

지금 우리나라는 經濟가 세상을 만드는 時代일지도 모른다.

經濟社會란 한마디로 表現하면 利害關係의 社會라 할수 있다. 去來란 모두가 利害關係의 表現이며 그 現象인것 같다. 지난 70年代에 追求해 왔던 經濟開發政策이 국민들의 經濟觀念을 크게 높였다. 反面에 이에 相應하는 經濟倫理를 수만하지 못해서 非理的 利害關係가 橫行하여 이른바 經濟社會惡을 造出하기도 한것 같다. 「갈레르기」가 科學技術의 힘을 禮讚하면서도 科學倫理를 強調한 것에 충분한 理解가 가는것 같다.

심심풀이로 읽었던 日本雜誌에 「사람을 움직이는 方法」이란 대목을 보았더니 經濟社會에 사는 사람들은 利害關係와 結付되었을 때 가장 敏感한 行動을 보인다. 動力線을 利害라는 스



## 世相을 만든다.

위치에 꽂아라, 그러면 누구나 움직이기 마련이다라는 뜻이었다. 사실 우리의 日常生活에서 주고받는 말, 만나는 사람들의 用件, 이런 것을 分析해보면 누구나 80~90%가 利害關係의 융합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들의 經濟生活, 利害關係의 密度를 実感케 한다.

오늘날 經濟가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사실인지 모른다.

오늘 우리는 80年代 高度産業社會— 福祉社會를 만들기 위한 經濟政策을 짜내는데 頭腦가 動員되고 있는 것이다. 80年代의 「世相」은 이들 頭腦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어떠한 80年代가 만들어질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그리는 꿈의 集積인것 같다.

80年代가 어떻게 만들어지나? 아니 80年代는 어떠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80年代가 안고 있는 우리 經濟의 課題일 것이다.

「他人의 房」에서 트위스트의 亂調를 들을 것이 아니고 「내 房」에서 時調를 自詠하는 經濟를 만들고 싶다.

속살이 썩어졌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70年代에 걸살만이 썩것 같다. 부어오른 걸살같다. 부어오른 걸살은 膨脹이다. 肉實이 없었다. 量에 의한 擴大가 70年代의 우리 經濟인것 같다.

속살을 채워야겠다. 그래야만 단단한 體質이 될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속살이 썩도 質이 좋은 살이라야겠다.

膨脹은 質이 아니고 量이다. 80年代는 量의 時代일 수는 없을 것 같다. 量的으로는 많은것

이 쏟아져 나왔으나 需要者 消費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低價爲主, 物量爲主에서 高質化, 高級化가 追求되는 것이 80年代일 것이다.

生産施設을 性能化하고 技術投資도 늘리고 이른바 省力化로 전환하면서 高級經營人, 高級技術人의 양성이 時急해진 것 같다.

70年代는 이를테면 大企業의 세상이었으나 80年代는 産業部門에서는 中小企業의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 80年代도 물론 重化學工業이 主軸을 이루겠지만 그것은 中小企業의 育成이 수반되어 業種間 均衡體制가 追求될 전망이다.

어쨌든 오늘의 人間은 옛날의 그것과는 달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다 살기좋은 세상으로 만들려는 意志와 努力이 強하게 作用하는 時代임에는 틀림이 없는것 같다. 또 그같은 힘도 갖고 있는것 같다. 나라를 다스리는 指導者들의 뜻이 그러하고 그것을 希求하는 국민들의 생각이 그러하며 努力과 協力이 이에 一致된다면 政府와 국민은 願하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可能性을 믿을 수 있다고 본다.

요즈음 세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고 그것이 좋은 세상, 국민이 바라오던 세상으로 달라지고 있음이 確認될 때마다 希望과 勇氣를 갖게 되고 그것을 俱現하는 可能性에 確信을 더해가고 있는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게 한다. 어떤 세상을 만들든 그것은 국민의 생각과 努力에 달렸다고 본다면 너 나 할것 없이 覺醒해야할 점도 많은것 같다.

